

[국제]

美, '슈퍼노트' 北과 연관 결론



자유북한radio 대표인 김승민(오른 쪽)씨가 25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원 청문회...年 100만달러 규모 유통 가짜담배 年400만 상자...北 최대수출품



25일 오후 미 상원에서 열린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한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북한이 만든 가짜 담배로 담배와 가짜 비아그라. /연합뉴스

미국은 지난 1989년 이후 연평균 280만달러 상당의 100달러권 및 50달러권 초정밀 위조화폐인 '슈퍼노트'를 적발했으며, 북한에서 슈퍼노트가 계속 생산되고 있고, 북한내 분배망에 의해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음을 파악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가 25일 밝혔다.

마이크 메리트 비밀검찰국 부국장보는 미 상원 국토안보·정보·국회안보소위 주최로 열린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한 청문회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슈퍼노트와 북한간에 연관이 있다는 단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1990년대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대규모 슈퍼노트를 소지하고 있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됐다"면서 "북한 관료들의 경우 외교관 지위를 이용, 처벌을 피했다"고 말했다.

메리트 부국장보는 적발된 슈퍼노트 가운데 북

한과 직접 관련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하지 않았으나 워싱턴의 고위소식통은 북한이 연간 100만 달러 정도 슈퍼노트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89년 필리핀 센트럴뱅크에서 슈퍼노트가 적발된 뒤 전세계 130개국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모두 170건을 적발했으며 총 적발액은 5천만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슈퍼노트를 제외한 일반위조 달러화 규모는 1억1천300만달러에 달했다.

민간기구인 정보분석연구소의 데이비드 아서 박사는 "북한 정부는 주요 수입원으로 마약거래를 지시하고 있으며 그 수입이 연간 1억~2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아서 박사는 또 가치면에 있어서 북한의 최대 수출품은 담배로 등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가짜담배이며 "평양과 인근의 6개 공장을 비롯해 모두 10~12개의 공장에서 가짜담배를 만들고 있다"면서 "총 생산량은 연간 410억개비, 400만 상자에 이르며, 수입액은 5억2천만~7억2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프라하 국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9월까지 미국에서 북한산 가짜담배로 관명난 말보로 담배가 1천300건에 달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몇몇 기소사건에 대해서 500만달러 물수를 추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만기자 man21@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 물결

전세계에서 모인 수천명의 유대인 청년들이 25일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기념일을 맞아 폴란드 아우슈비츠와 비르케나우 사이 3km 구간에서 유대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생명의 행진' 행사를 가졌다. 비르케나우 수용소 앞에서 행사 참가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귀를 담은 엽서를 놓아두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공



스터링 스미스 박물관의 큐레이터 마이클 맥킨스 씨가 25일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구공을 들고 있다. 이 공은 450년 전 영국에서 돼지 방광과 사슴 가죽으로 보이는 조각들을 덧대 만들어진 것으로 16세기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은 독일 월드컵 기간 함부르크 민족박물관에 전시된 후 9월 중순 스미스 박물관으로 되돌아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략유 비축 가을까지 중단"

부시 대국민 연설...고유가 대책 밝혀

연일 치솟는 기름값으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25일 시중에 대한 석유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략유 비축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유가 속에 거액의 손익을 올린 정유사들의 폭리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명령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고유가 대책을 밝히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비슷한 석유공급을 늘려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올 여름 석유 소비 성수가 끝날 때까지 전략유 비축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위기 시 투입할 충분한 물량의 전략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략유 비축을 올 가을까지 연기함으로써 좀 더 많은 석유를 시장에 남겨둘 것이

며, 아주 적은 물량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 행정부는 "조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FTC가 이미 자신의 지시에 따라 휘발유 가격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회사들이 지금과 같은 감세 혜택을 모두 향유할 수는 없다며 의회나 정부가 정유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혜택 중 일부를 없애도록 법제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료 등급 관련 환경기준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대학 외국인 유학생수 한국 1위

작년 13.5% 8만6천여명 인도·중·일·대만 뒤이어

지난해 9월말 현재 미국 대학에 유학중인 한국 학생수는 8만6천626명으로, 미국내 전체 외국 유학생의 13.5%를 차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ICE) 집계 결과 나타났다.

2004년 12월말 현재 한국 유학생이 7만3천272명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했던 것을 감안하

면, 9개월 사이에 한국 유학생이 1만3천354명이나 늘어났을 뿐 아니라, 특히 전체 외국 유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 것이다.

2위는 인도(7만7천220명, 12.1%), 3위는 중국(5만9천343명, 9.3%), 4위는 일본(5만2천816명, 8.6%), 5위는 대만(3만6천91명, 5.6%)으로, 인도를 제외하곤 동북아

4개국이 5위까지 모두 차지했으며, 미국 접경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6.7위를 차지했다.

유학생의 부인이나 자녀 등 동반자도 한국 유학생의 경우 총 5만2천163명으로 다른 나라 유학생들에 비해 가족과 함께 유학하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만기자 man21@

'민주주의의 승리' 네팔 국민들 환호

네팔 야당연합이 19일간 계속된 총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야권은 또 제1야당인 네팔의회의 당의 기리자 프라사드 코이랄라 당수를 차기 총리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로써 가넨드라 국왕의 친위 쿠데타 이후 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14개월 이상 혼미양상을 거듭해 온 네팔 정국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의 절반 정도를 점령한 상태에서 야권과 느슨한 동맹관계를 형성해 온 공산반군은 국왕의 발표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음모"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함으로써 향후 정국에 불확실성의 여지를 남겼다.

◇'피롤파워'의 승리는 가넨드라 국왕이 4년째 공백상태인 의회를 복원하겠다 2차 양보안을 제시한 데 대해 7개 정당으로 구성된 야당 연합은 25일 오전 막후협상을 열어 총파업을 공식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연합은 또 신정부 구성되는데로 공산반군의 휴전을 선언한 뒤 정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도 카트만두의 순환도로에서는 수만명의 군중들이 모여 "민주



수천명의 네팔 시민들이 지난 25일 네팔 국기를 흔들며 카트만두 시내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넨드라 국왕 "下院 복원" 선언

야권 19일간의 총파업 종료키로

주의여 영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승리의 감격을 누렸다. ◇향후 정치일정은 야권은 총리를 3차례 역임한 네팔의회의의 코이랄라 당수를 차기 총리에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이를 국왕측에 통보했다.

네팔의회의당은 지난 2002년 5월 하원이 해산되자 직전 총 205석 가운데 113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최대 정당이었으며 지금은 분당돼 있는 상태다. 코이랄라의 신정부

가 선거를 통해 제한의회를 구성

해 헌법을 개정하면 국왕이 명목상의 지위로 격하되면서 왕권이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헌군주제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희망사항일 뿐 가넨드라는 전 날 연설에서 제한의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야권의 로드맵을 따르겠다"며 다소 모호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새로운 돌출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최진만기자 man21@

당선확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선거운동, 선거법, 투표방법, 유세방법, TV광고. 전화: 02-6326-4523-4, 017-803-6524

전통의 백을 이어가는 담양안과에서 시제·제사상음 차려드립니다. 담양안과. 001-383-8283

독일보청기. 독일보청기 전문점. 02-231-1811

공무원 직장인 신용정보대출. APT 주거대출 최대 80%까지 가능. 1544-1731

삼보전기온플랜넵. 삼우상사. 02-228-8742